

국악 현대화의 선구자
민속음악의 아버지

지영희



글·구성 박성복
그림 장영우

지영희가 태어난 경기도 진위군 포승면 내기리 543번지(현 평택시 포승읍) 안터마을은 농업과 어업을 함께 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1909년 9월 27일, 지영희는 천대받던 무속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응애~
응애~



지영희는 호적에는 지천만(池千萬), 어렸을 때 마을에서 지한식(池漢植)으로 불렸으며, 아호는 지영희(池瑛熙)였다.



소년 영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서당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학업에 대한 열망은 누구도 꺾지 못했다.



다행히 형편이 나지면서 7살부터는 정식으로 서당에 들어가 한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영희는 또래보다 늦게 한학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남들에게 뒤지는 것을 싫어하고 머리가 명석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을 따라잡았다



한학을 공부하면서도 영희의 머릿속에는
항상 악기 연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였다.



어!
긋거리장단이네

12살이 되던 해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
하자 영희는 13살에 한학을 중단한다.



가슴 속에 들끓었던 음악에 대한 집념
을 버리지 못한 영희는 이 시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14살 소년 영희는 어깨에 보따리를 메고 그 길로 고향 집을 나섰다. 그의 첫 번째 가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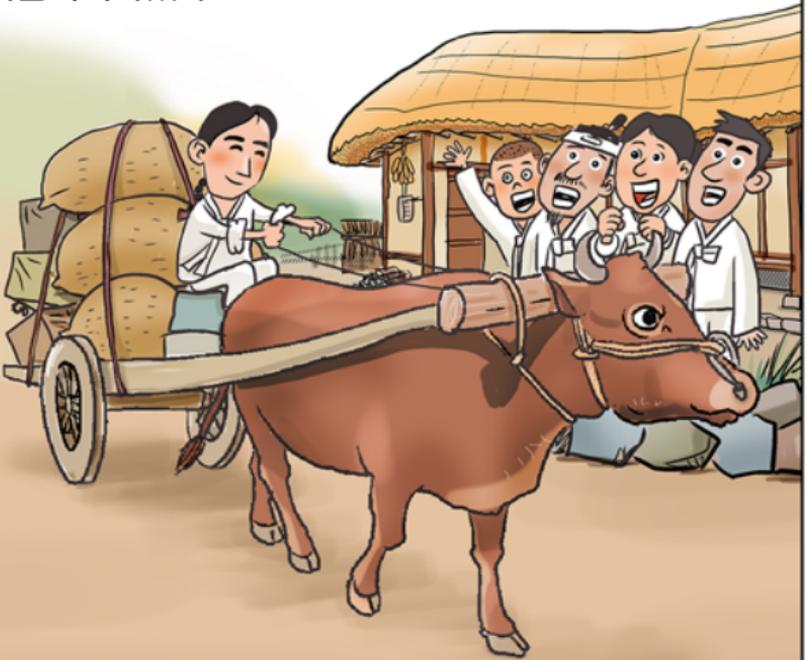
지영희가 가출해 찾아간 곳은 굿판이었다. 굿판의 악사는 돈벌이가 괜찮아 기울어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제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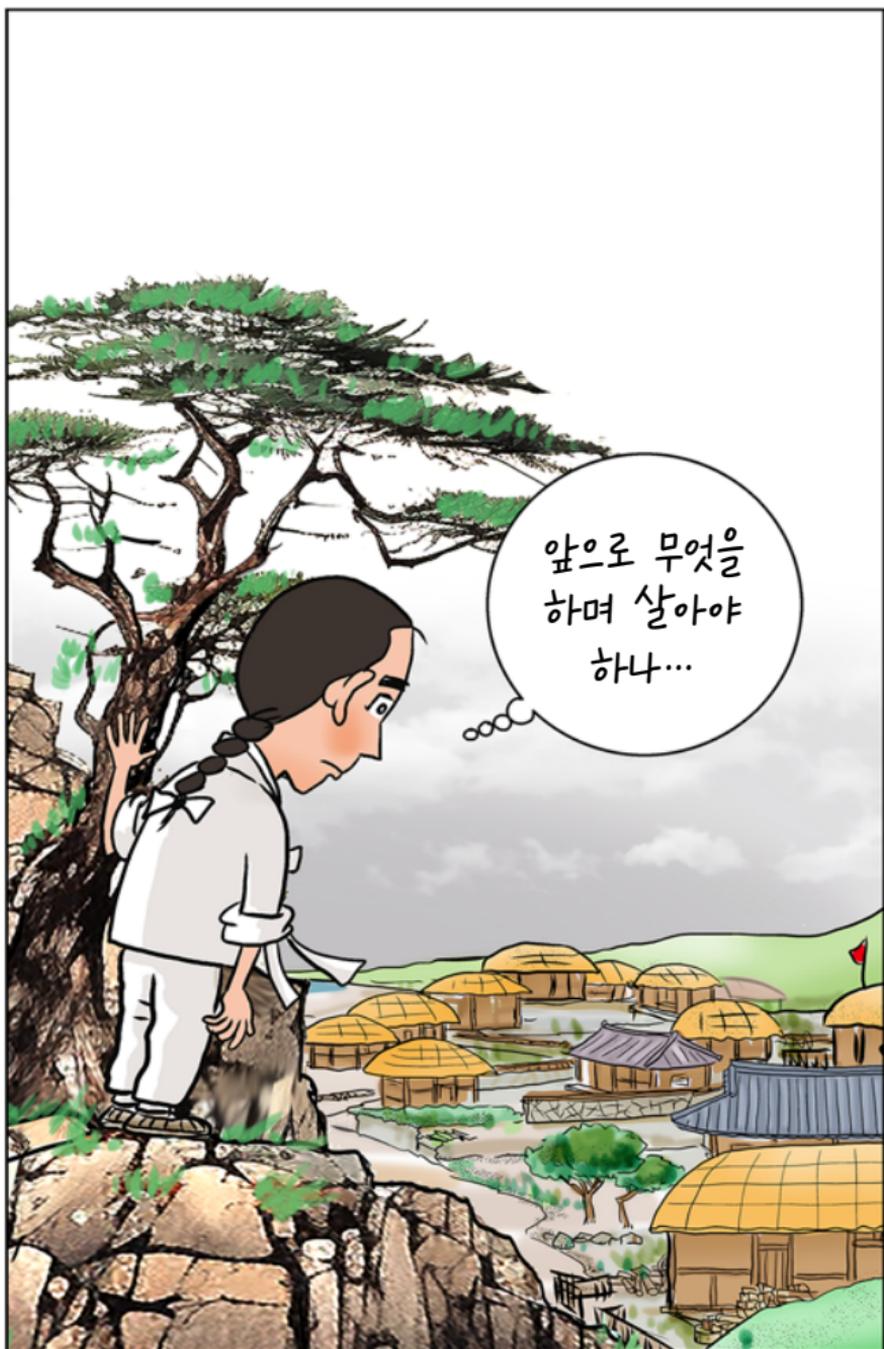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나 굿판의 악사로 남는 게 그토록 싫었던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몇 년만 고생한 후 다시는 굿판에 얼씬거리지 않겠다”고...



지영희는 17살 되던 해인 1926년 집으로 돌아온다. 굿판의 악사로 연주해서 번 돈과 쌀을 마차에 한가득 싣고 금의환향(錦衣還鄉)하는 모습에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였다.





지영희가 고향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이웃의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화병으로 몸져눕고 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는 것이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한 영희는 고심 끝에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지영희는 17살 되던 1926년 수원에 사는
13살 정경순과 결혼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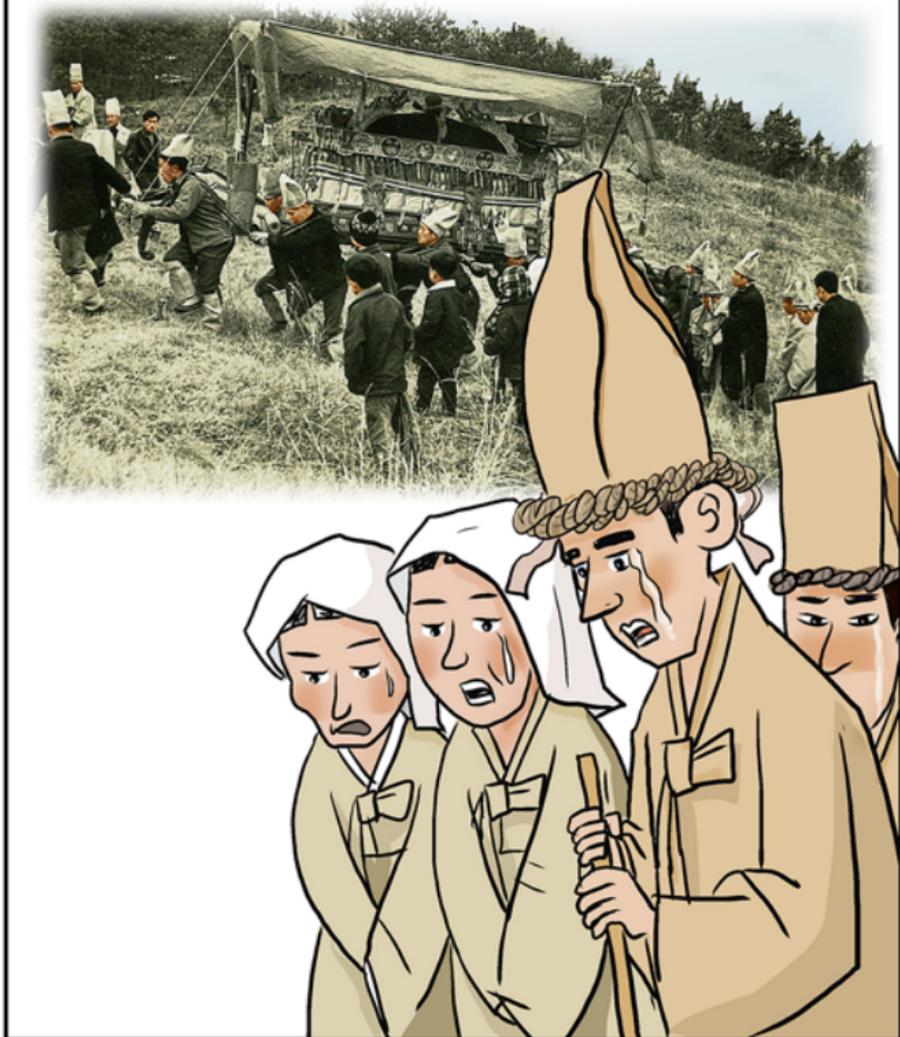
결혼 후 지영희는 인근 마을에 새로 생긴 내기강습소
(현 내기초등학교)에 입학해 늦은 나이에 보통학교
(현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는다.



결혼 후 생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1928년 아버지 지용득이 돌아가시자
한식과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다.



영희에게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으로 집안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중압감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당장 눈앞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굶판의 악사로 나서야 하는지, 훌륭한 국악 연주자의 길을 가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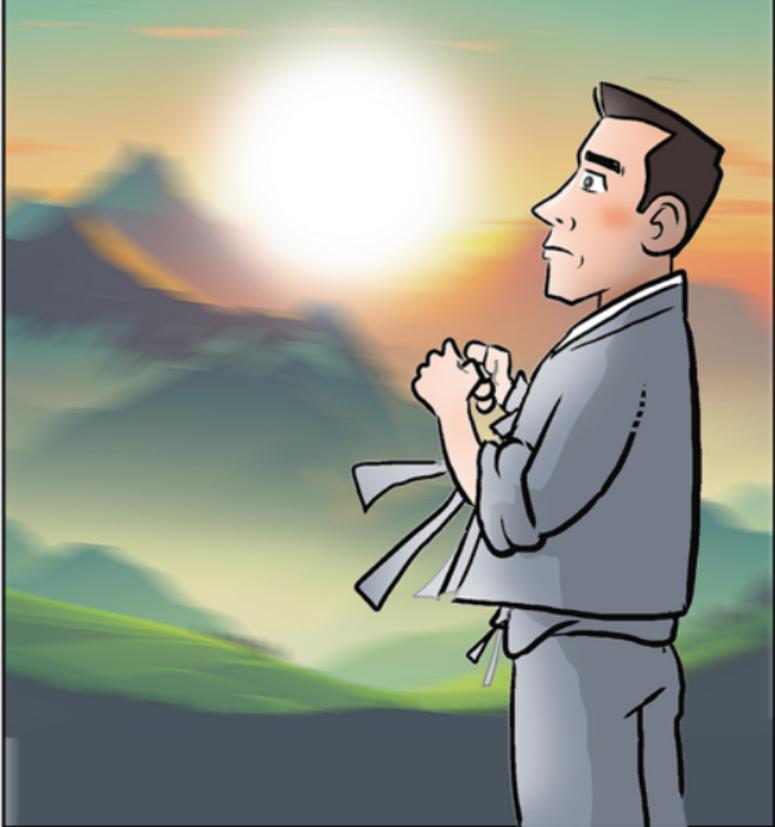
이제 내가
가장이
되는 건가...



그래 대대로
천대받고 살아온
무속인의 고리를
이제 끊어내야만
해~



인생의 갈림길에 선 영희는 자신의 장래와 국악의 미래를 생각하며 결의를 다진다. 음악가로 성공하여 천대받는 국악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결심한다.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난 영희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스승을 만나 악기 연주를 배웠으며,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명인들에게서 국악 연주자로서의 체계적인 학습을 이어갔다.

9살, 승무, 검무, 굿거리(이은석)

18살, 무악(최응래)

20살, 호적(조항련)

21살, 양금(정태신)

22살, 해금(지용구)/
피리(양경원)

23살, 풍류대금(김계선)/
민속대금과 풍류대금(방용현)

24살, 농악 12채(최군선)/
무속장단 12채(지용구)

26살, 무속장단 12채(오덕환)

27살, 경서도민요(박춘재)



영희는 28살 되던 1937년 큰 뜻을 품고
서울(경성)로 올라간다.



지영희의 음악 인생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된 것은
1937년 4월 한성준이 주도한 '조선음악연구소'에 들어
간 것이었다. 그는 당시 최고의 무용가 한성준이
주도하는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서 피리와 해금, 단소,
양금을 지도하였다.



지영희는 한성준에게 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악기 연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그가 최고의 무용가를 만나 춤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면서 기악과 춤을 모두 섭렵하는 만능 재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한성준과의 인연은 세기의 무용수 최승희의 무용 반주로까지 이어진다.

영희! 자네 승희 반주 좀 해줄 수 있겠는가? 자네 실력이면 가능할걸세!

선생님, 저야 영광이죠.



지영희는 1942년 최승희를 처음 만나 1944년까지 '최승희무용단'의 일원으로 국내 공연은 물론 해외 순회공연단에 참여해 시야를 넓혀나간다.



기존 악기로만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어...



이 시기 지영희는 몇몇 악기로 연주되는 무용음악 반주에 한계를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희는 악기 개량과 관현악단 설립을 구상하게 된다.



일본의 강제 점령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1945년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해 일제의 패망 소식과 함께 해방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해방 후 국악계에서는 '조선음악건설본부'가 조직되는 등 국악 재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 영화는 음반을 내거나 서울방송국 국악사로, KBS 방송국 전속 방송국악단에서 연주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1948년 7월 '지영희음악연구소'를 세운 영희는
후진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이때 삼현육각 중심의 국악기 편성의
한계를 넘어서 관현악 편성을 시도하였다.



지영희는 1948년 4월 26일부터 일주일간 공연한 국악원
직속 국극사 창립 2주년 기념 작품으로 국극 '선화공주'
에서 12인조 연주자를 구성해 연주하였다.



지영희가 모든 음악을 책임진 국극 '선화공주'는
관객에게 찬사를 받으며, 광주, 순천, 목포, 여수 등
지방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일제강점기 통제되었던 농악대회가 해방 후 전국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개최되었다. 영희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농악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다.



1948년 봄, 경성방송국 관악담당 악사로 활동하던 지영희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 가야금 연주자 성금연과 재혼하게 된 것이다.



고향 전라도에서 1941년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사 온 성금연은 스승 안기옥에게 가야금산조를 배웠으며, 1941년부터 경성방송국에서 가야금 연주와 가야금병창가로 활동하였다.

언니 성금화, 성금주, 성금선도 국악 연주가인 국악 가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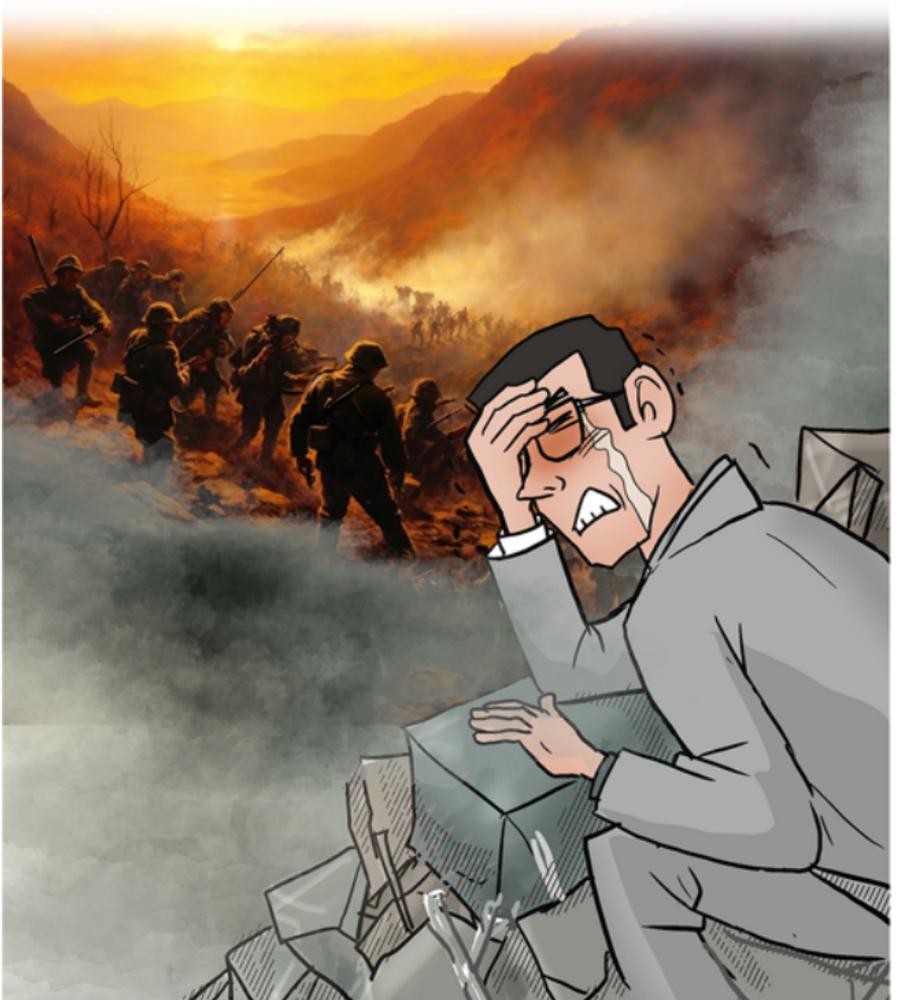
지영희와 성금연 두 국악인의 결혼은 당시 가장 실력 있는 연주자 두 사람의 결합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국악 체계화를 위한 연구와 연주 활동, 지방 순회공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으며, 국악계의 동지이자 동반자로 일평생을 함께 하였다.



해방 후 국악 부흥을 위한 국악계의 노력이 한창 진행 되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국민이 다시 혼란이 휩싸였다.



지영희와 성금연은 부산에서 공연을 진행하다가 6.25 전쟁을 맞았다. 고향 평택과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경을 결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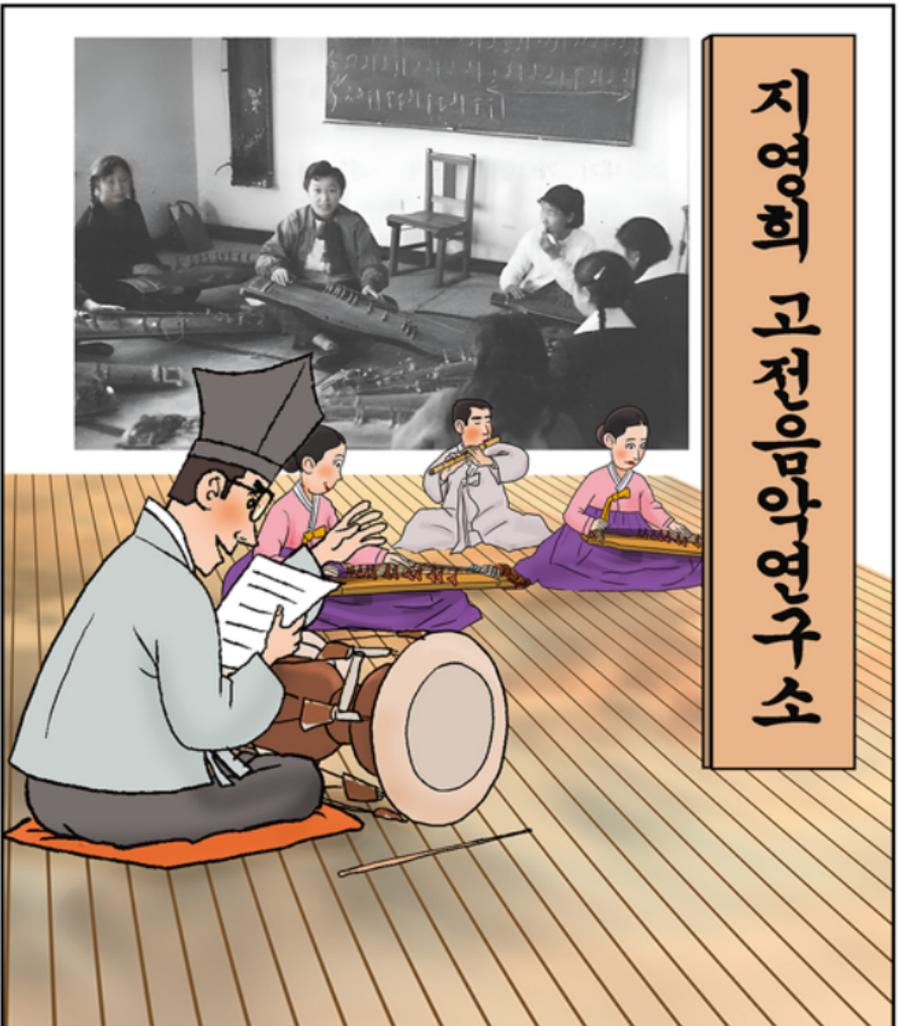
지영희와 성금연은 전쟁통에 평택 포승 고향에서 자녀들에게 가야금산조와 민요, 춤, 장단을 가르쳤고 가족연주단을 꾸려 고향 마을과 수원, 충청도 일원으로 공연을 하러 다녔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지영희와 성금연은
1953년 8월 서울로 올라갔다.



1953년 박헌봉의 주도로 '대한국악원'이 설립될 당시 지영희
는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대한국악원 산하 '지영희고전음악연
구소'를 서울 을지로2가에 개설해 기악과 무용을 전문적으로
가르쳤다.



하지만 국악계의 내분으로 1953년 가을 박헌봉이 대한국악원 정기총회에서 불신임됨에 따라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지영희 또한 대한국악원을 탈퇴하기에 이른다.



대한국악원을 탈퇴한 지영희를 비롯한 여러 국악인은 1959년 2월 '대한민국예술원'을 창립하였지만, 정권을 배후에 둔 반대 세력에 밀려 제대로 된 활동을 해보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박헌봉과 박귀희가 중심이 되어 국악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한 예술학교 설립을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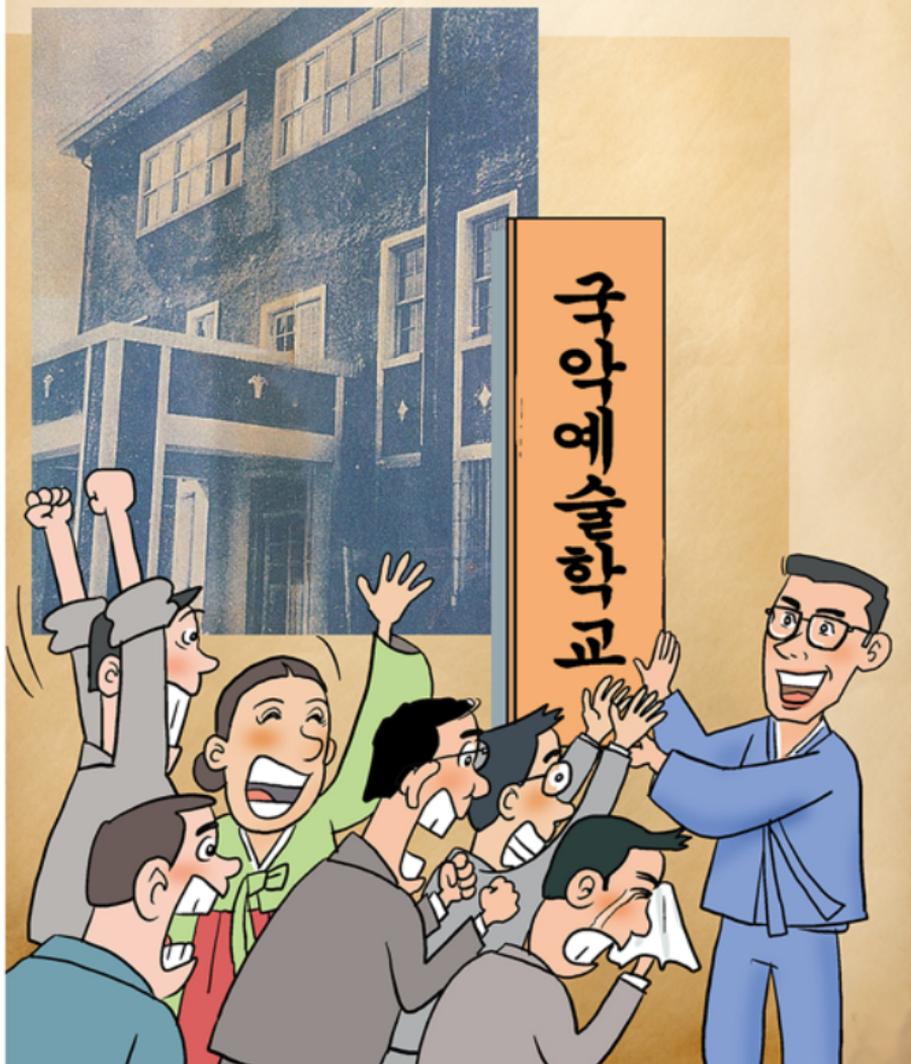
예술학교 설립 구상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국악동호회'를 주도했던 박헌봉, 박초월, 박소군, 한영숙, 지영희, 성금연이 '민속예술학원' 설립을 추진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학교 설립 인허가 절차를 힘들게 준비한 국악인들은 드디어 1960년 3월 5일 '국악예술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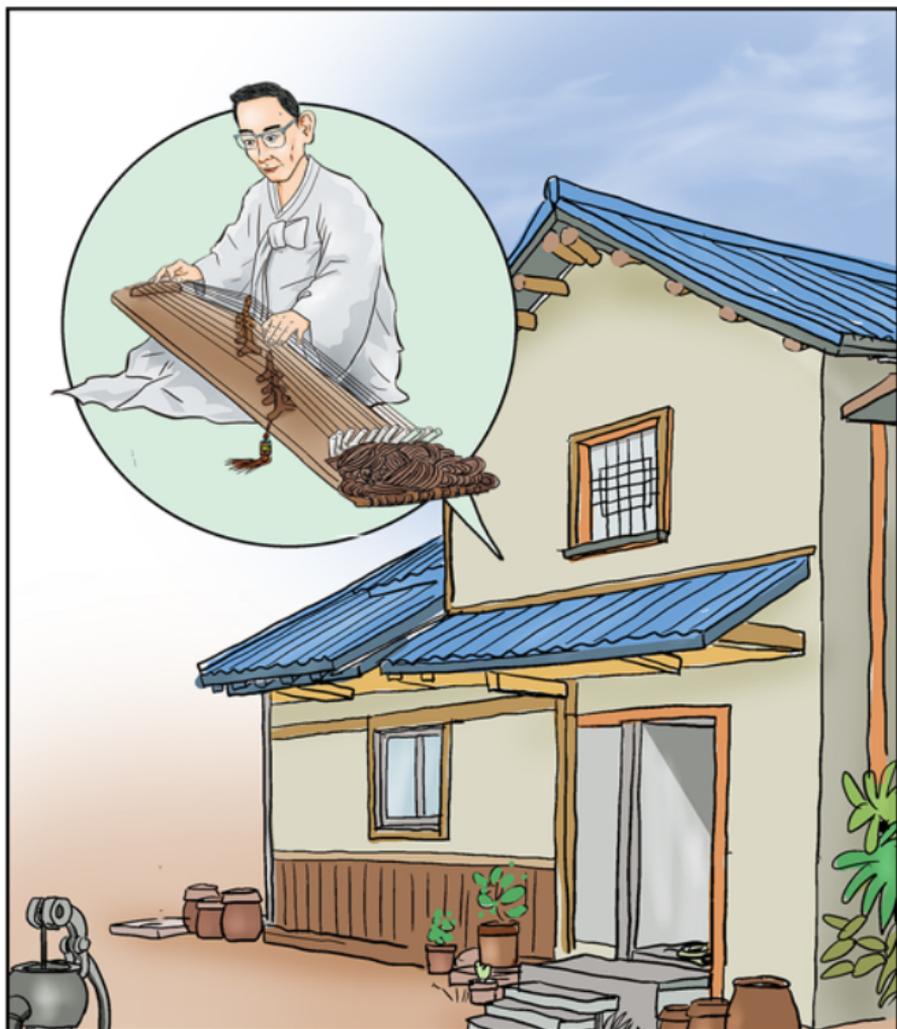
학교설립을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국악인들은 1960년 5월 13일 관훈동에서 '국악예술학교' 개교식을 가지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국악예술학교 개교 후 교사들은 월급도 없이 무보수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지만, 열정만큼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영희는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해금, 피리, 양금, 반주 등을 가르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하루는 지영희가 집으로 제자들을 불러들여 지도하고 있을 때 부인 성금연이 자장면을 시켰으니 드시고 가르치라고 하였다.

여보~
시장하실 텐데
식사하시고
가르치세요~





지영희는 배달온 자장면을 쳐다본 후 큰 소리로 화를 내며 학생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일화가 바로 지영희의 집에서 벌어진 '자장면 사건'이다. 지영희의 제자 사랑이 묻어나는 이 일을 제자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를 하숙집처럼
자기 집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용돈을 손에 쥐여주는 일도 흔했다.



국악예술학교에서 예술부장으로 학생들의
악기 연주 지도를 책임진 지영희.
그의 국악예술학교 재직은
교육자로 빛을 발한 시기였다.



국악이 정간보와 구음으로만 전해지던
공식을 깬 것도
바로 지영희였다.



지영희는 서양음악의 작곡법을 배워 입에서 입으로
학습되어온 국악을 서양의 오선보로 체계화시켰으며,
오선보로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였다.



지영희는 틈만 나면 국악예술학교 안에 있는 국악기제작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악기를 만드는 장인은 지영희가 나타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지선생님만
왔다 하면
요구사항이
한둘이 아니라
피곤혀~



기존 국악기로는 음역이 좁아
다양한 연주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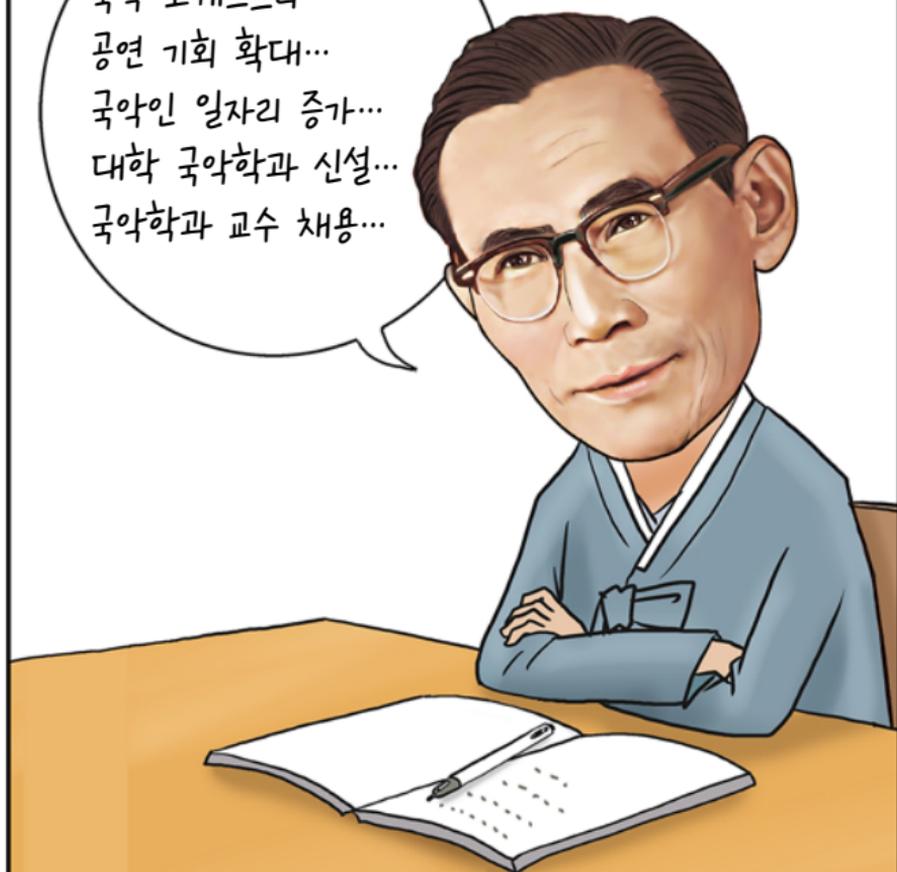


그가 악기 개량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국악도 서양음악처럼 오케스트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부가 숨어있었다.



지영희가 생각하는 악기 개량은 다양한 분야의 확장성을 생각한 것이었다.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 기회 확대...
국악인 일자리 증가...
대학 국악학과 신설...
국악학과 교수 채용...



이처럼 지영희는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이자,
우리 국악의 미래를 앞서 개척한 인물이었다.



그의 열망대로 1962년 국악예술학교 민속예술제에서
국악관현악단 연주가 처음 이뤄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 무대에 오른 것이었다.



국악기로 구성된 관현악단 연주에 관객들은 환호하였다.
처음 들어보는 국악관현악단의 폭넓고 역동적인 연주는
관객들을 홀리기에 충분하였다.



지영희의 이 같은 노력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기에 이른다.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에 이르기까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지영희는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1965년 3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옆 시민회관.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 기념 연주회에서 지휘봉을
잡은 지영희는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주변의 냉담과 불신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순간이었다.



지영희는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악계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스승으로부터 학습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개척의 길을 걸어온 결과였다.

- 국악예술학교 설립과 학생 지도
-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과 상임지휘자 활동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공연
- 한국 영화 반주작업
- 방송국 악사 활동과 음반 취입
- 국악기 개량과 작곡 활동



이처럼 다양한 활동과 업적에 힘입어 1967년 서울특별시문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72년에는 예술인이란 일평생 오르기 힘든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 선다. 지영희, 성금연, 김소희, 김윤덕은 이 공연에서 호평받았으며, 한국음악의 위상을 드높였다.



대한민국 정부도 지영희를 시나위 분야의 독보적인 연주자로 인정하게 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나 할까? 좋은 일 뒤에는
시샘하듯 안 좋은 일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말을
지영희도 피해 가지는 못하였다.

지영희

1971년 지영희가 '한국민속연구원'을 설립하자 국악협회를
주도하던 일부 세력이 이를 또 하나의 국악협회로 보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악을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해 '한국민속연구원'를 세우려는 지영희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상황은 최악으로까지 치달았다.



지영희는 자신의 국악협회 제명 소식에 망연자실한 상태로 그동안 살아온 삶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1974년 하와이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이국땅 하와이에서도 지영희는 오직 제자와 국악 발전을 생각하며 공연과 악보를 쓰는 일에 집중한다.



동료와 제자들로부터 날아오는 편지에 답장하고, 연주를 녹음해서 고국의 제자들에게 보내는 일은 지영희의 큰 보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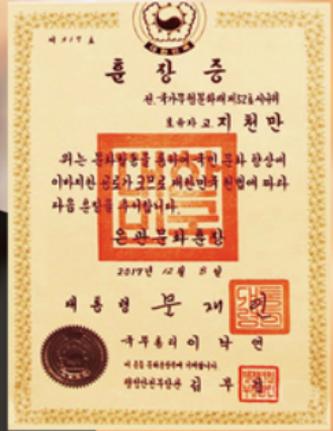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일. 이민 생활을 하던 지영희는 고국과 국악에 대한 그리움을 뒤로한 채 1980년 2월 2일, 71세의 나이로 이국땅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다.



지영희의 운명은 국악 발전에 있어서 큰 손실이었다. 많은 사람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그의 이민과 운명이 국악이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지영희가 하와이에서 작고한 지 37년만인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악사에 남긴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한다.



민족음악의 아버지 지영희를 기리며

임 봄/시인·문학박사

그것은 바닷가에서 탄생한 새로운 바람
평택 포승 앞바다 지문일가의 세습무와
바다로 나간 장정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피리와 해금 호적소리 가득한 굿판으로부터

즉흥적인 가락이 온몸으로 스민 경기시나위
해금과 피리를 독주 악기로 만들며
서양음악의 개방에 맞서려 했던
젊은 음악인의 피맺힌 고뇌와 절규의 가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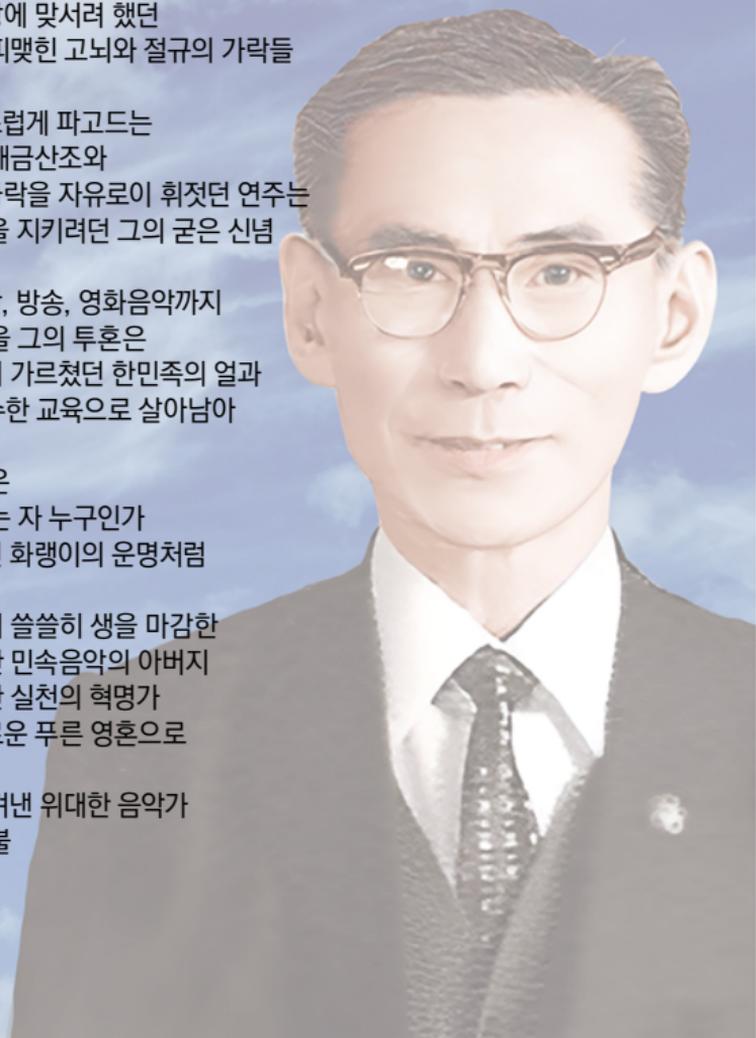
경쾌하고 익살스럽게 파고드는
섬세한 굴곡의 해금산조와
태평소와 장구가락을 자유로이 휘젓던 연주는
끝내 우리의 것을 지키려던 그의 굳은 신념

채보, 작곡, 음반, 방송, 영화음악까지
역사에 길이 남을 그의 투혼은
국악학교를 세워 가르쳤던 한민족의 얼과
제자들에게 전수한 교육으로 살아남아

아직 끝나지 않은
원대한 꿈을 아는 자 누구인가
평생을 외면받던 화랭이의 운명처럼

낮선 하와이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국악을 현대화한 민속음악의 아버지
국악을 학문화한 실천의 혁명가
살아있는 자유로운 푸른 영혼으로

우리의 것을 지켜낸 위대한 음악가
꺼지지 않을 등불
그의 이름은
지, 영, 희!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민속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영희.
 악기 연주자, 국악 교육자, 영화음악가, 무용음악가,
 국악기 개발자, 국악관현악단 창시자, 지휘자, 작곡
 가, 시나위 보유자로 그가 남긴 업적은
 우리 국악의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어 오늘의
 K-국악이 있게 하였다.



지휘자

국악기개발자

무용음악가

영화음악가

국악 교육자

악기연주자

평택시와 지영희기념사업회, 국악계의 거목으로 성장한
 제자들은 매년 예술제, 경연대회, 창작곡 공모전, 학술대회,
 출판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영희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